

간화선사도 불교사회 개혁 추진했다

박희승 성철연구실장, 한국선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서 강조

흔히 선종불교로 대변되는 근현대 한국 불교가 역으로 수행정신 확보를 통해 사회 참여를 해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사진)은 4월 25일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가 연세대 외솔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세미나에서 '간화선의 현실 인식과 대응' 주제발표를 통해 "간화선사들은 근현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불교와 사회개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제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교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행활동이며, 그 중심에는 제교인들의 수행이 있음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최근 '간화선에 현실 참여의식이 결여됐다', '선에서 현실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없다', '깨달음 지상주의가 현실대응에 장애'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불교를 통속적으로만 보는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성철 스님의 수행을 사회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성철 스님이 군사독재 시절 현실정치와 거리를 둔 것은 불교의 선종진작을 통해 불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박 실장은 "당시 불교는 전체 승려 중 대처승이 80%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 사회참여 '통속적 시각' 비판

경허·성철 스님의 방식 고찰

불교 세속화 영향 비판도 나와

교의 본질회복을 통해 대중들에게 불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며 "제선제 이래 수백 년 동안 산중으로 밀려나 겨우 명맥을 이어온 불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재양성과 교단 쇠신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선부른 사회참여가 아닌 불교 근본의 정체성을 살려 현대의 마음에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 또한 제교의 사회참여"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경허 스님이 1895년 도성출입금지 해제 당시 불교계에 한양구경 열기가 일던 시절 '경성 땅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한 현실인식도 예로 들었다.

박 실장은 "산중에서 선풍을 세우고자

한 것은 불교 정체성을 세우고자 한 것이며 경허 스님은 일제강점기 일부사찰 대표가 일본 제동제과 연합을 도모할 때 임제법통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1876년 개항 이후 유대치, 오경석, 이동인 등 불자거사들이 선(禪) 정신으로 혁신을 도모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제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도 "세속에서는 불교의 초세속적 삶의 양식에 위안을 얻고자 한다. 오히려 불교의 사회참여 위기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교계의 세속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선과 명상, 선과 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류상운 박사(동국대)는 '제사전에서 원용하는 경영의 위기관리'에서 "선수행을 통한 평상심 유지가 경영일선에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다"며 "변화 감지 및 대응, 구성원들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인식론과 현실' 세미나

5월 16일, 덕성여대서 개최... 가상공간에 대한 불교시각 조명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재남)는 5월 16일 8시 서울 덕성여대 안국동캠퍼스에서 '불교의 인식론과 현실'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인터넷 등 가상현실에 대한 불교의 시각이 논의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우동필 전남대 교수의 '역관의 십이연기' △정은해 성균관대 교수의 '유식의 증자증분에 관한 담

론 지형의 분석' △안환기 서울대 교수의 '유가행파의 눈으로 본 인터넷-식(識)과 가상공간' △김영진 동국대 교수의 '탕웅통의 승제 이해에서 보이는 본체론 도식의 문제점' △정해정 원광대 교수의 '불교적 시각의 성장문화와 인성교육-한승원의 초의를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정토학회, '생전예수재' 학술대회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탁)는 제계사와 공동으로 5월 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생전예수재'를 주제로 제18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보광 스님의 기제강연을 진행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성운 동국대 평생교육원 겸임교수의 '생전예수재 설행 차서의 특성' △불찬법연구소장 해일 스님

의 '생전예수재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 학술연구교수의 '생전예수재의 제교문화적 의미와 위상' △성철원 동국대 불교학부 외래교수의 '제계사의 생전예수재' 등이 발표된다.

신규탁 한국정토학회장은 "생전예수재의 중요성과 그 의의를 재확인해 우리나라 전통문화 속의 불교사상을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581-3138 노덕현 기자

영화와 불교의 만남 모색한다

불교문예연구소 5월 12일 봉축 세미나 개최

'만다라' '화염경' 등 불교영화부터 '매트릭스' '클라우드 아틀라스' '인터스텔라'의 할리우드 영화까지 최근 영화 속 불교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영화와 불교사상의 만남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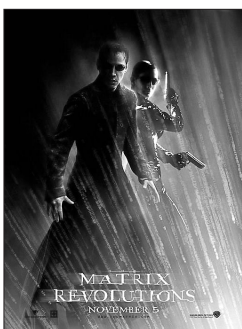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영화와 불교의 만남'을 주제로 5월 12일 오후 1시 동방대학원대 호운관에서 제5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 대학 영화, 영상학과 교수들이 나서 영화와 불교의 접점을 모색한다.

먼저 세미나 1부는 영화와 불교미학의 만남이 주제다. 오경후 동국대 학술원 연구교수의 사회로 정재형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가 '불교와 영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발제하며 윤광봉 前히로시마대 한국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최원섭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가 '불교소재 영화와 불교적 영화, 그 변증법적 만남'을 발제하고, 류제중 중앙대 철학과 전임연구원이 토론한다.

또 이나라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외래교수의 '영화적 이미지와 불교적 미학' 발표와 함께 이효인 경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2부는 그동안 나온 영화 속의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분석이다. 정영식 서울불교



대학원대학교 객원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권성훈 경희대 외래교수의 '한국 영화에 나타난 불교적 구원관' 발표에 이어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1999년 개봉 이후 불교관련 이슈를 모은 영화 '매트릭스' 이어 신광철 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외국영화에 투영된 불교적 사상과 특성'과 함께 김성희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또 박수호 서울디지털대학 교양과정 교수가 '정보화 시대에 불교와 영화의 소통 전망'을 발표하고, 한성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가 토론한다.

마지막 총평은 동방대학원대 석좌교수 법사 스님이 맡을 예정이다.

차차석 불교문예연구소장은 "1999년 5월 '매트릭스' 개봉 후 영화와 불교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일었지만 지속되지 못했다. 최근 '인터스텔라'가 개봉 후 최신 과학 지식을 영화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 불교와 영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재 수리현장 투명화 정책 본격 시행

문화재청, 4월 29일부터 수리실명제·일반인 관람 확대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모든 문화재 수리현장을 상시 공개하고 수리실명제를 시행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제치는 문화재 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비정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의 하나다.

이에 올해부터 국고보제사업으로 시행하는 모든 수리현장에는 제망지점(view point)을 설치하며, 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 덧집이나 울타리에는 1개소 이상에 투명판 등을 설치해 누구나 수리현장을 항상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의 문화재 수리와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수리현장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중점공개' 대상을 지정·운영한다.

올해 중점공개 대상은 '경북공 흥복전 권역 복원공사'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안동 제암리 5층 전탑 보수' 등 총 20개 수리 현장으로, 지난해(10개소)보다 2배 확대돼 운영된다.

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중점공개' 수리현장 관람을 희망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 후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수리 현장에서는 수리 전문가, 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유산해설사 등으로부터 수리과정과 문화재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리현장별 '중점공개' 일정과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정보공개-문화재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유산 3.0)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수리에 관한 모든 정보(참여자, 설계도, 관계 전문가, 수리보고서 등)를 문화재청 누리집(행정정보-행정자료-문화재 수리 실명제)을 통해 공개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돼 국고보제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국가 지정 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리현장에 설치하는 공사 안내판에는 기체에 명시되던 공사개요와 공사 참여자 등에 관한 정보는 물론 현장 대리인의 부재기간과 그 사유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문화재청은 "수리현장 공개와 '중점공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리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과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수리현장 공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귀농귀촌 활성화 세미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사회과학대학원은 5월 22일 오후 3시 포항 동국대 인재교육원에서 '포항시의 도시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동환 동국대 부동산학과 외래교수의 '한태평양 시대의 포항시 도시발전방안' △박해성 풍수지리연구

소 소장의 '재물운 들어오는 풍수지리 제성방안' △이상표 동국대 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원생 대표의 '포항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된다.

박병식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원 원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분야 청년 간담회서 제도개선 청취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4월 2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분야 청년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문화재 분야 청년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 창업자, 수리기술자, 무형문화재 이수자, 사회적 기업, 한 문화재 한 지킴이, 돌봄사업, 청년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문화유산교육, 매장문화재 등 여러 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문화재 분야 도전 의식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요인 또는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분야 청년을 위한 특화 지원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소개하며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지자체와 사회적 기업 성격인 문화재 돌봄단체 등이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잡초제거, 제설작업, 배수로 정비, 환경미화 등 일상적 관리와 함께 청소, 벽체, 기단, 마루, 기와 등의 경미한 탈락·훼손을 신속히 수리해 사후 보수예산을 절감하는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2010년 5개 시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3년 전국 시·도 국가 지정 문화재로 대상을 확대했다.

2014년에는 시·도 지정문화재까지 포함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자체 운영하던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사)문화재돌봄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한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 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 회 前 사회부장 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 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 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

제1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 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초의식(3개월단기)

도량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칭, 중단퇴공, 각단불공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중급과정(범음, 범패)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법 : 천수바라, 도량계, 사다라니작법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강주스님 : 일관

보경사 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 사진 3매
- 개강일시 : 2015년 5월 7일(목)
- 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 주 소 : 경복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번지
- 신청문의 : (054) 262-1117(보경사 중무소)

※ 속식 제공 가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